

政府機構改編에 따른 圖書館의 問題

李 承 周

(國立中央圖書館)

「政府機構改編에 따른 圖書館의 問題」란 題目으로 오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政府機構의 改編」의 內容이란 여러분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來에 一般文化界에서 많이 論議되고 있는 文化行政 擔當部處의 改編에 대한 論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文化行政에 관한 事務管掌이 文教部和 公報部로 分割되어 있는 現行政體에 대하여 再檢討가 進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圖書館行政에 관한 것은 果然 어떻게 落着될 것인가에 대한 歸趨에 注視하고, 圖書館行政體制의 現況을 中心으로 問題點들을 提起하면서, 圖書館 行政의 Is (Sein)와 Should (Sollen)의 問題를 圖書館大會를 通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問題의 重大性에 비추어 意義 있고 當然한 일이라 믿고 이 大會의 議題로 採擇된 것으로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本人은 于先 問題의 發端에서 부터 살펴 볼까 합니다. 그 遠因은 文化行政의 歷史的 背景 속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五千年이란 긴 歷史를 갖고 있고 비록 外敵의 侵入 등 順坦치는 못하였지만 民族이 슬기롭고 自然條件이 좋아 높은 文化를 創造할 수 있었던 文化民族이며 그 文化를 간직하고 있는 文化所有國家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나라는 低開發國家(Under developed country)일 망정 未開國(Undeveloped country)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世界에는 文化를 갖고자 하는 民族과 國家는 많아도 文化를 歷史적으로 所有하여 온 民族은 흔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이들 少數의 民族中에는 나라가 없어서 간직하고 까꾸지 못한 民族도 있습니다. 政治할 能力이 없어서 이를 잘 保存 發展시키지 못하는 民族도 있습니다.

日帝 36 年間の 事情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日本의 韓國에서의 統治는 經濟적으로는 日本經濟를 위하여 政策이 세워졌고 文化的으로는 抹殺政策이요 겨우 그들의 皇民化政策을 위한 教育和 敎化와 宣傳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朝鮮總督府의 職制上으로도 이는 뚜렷이 나타나 있는 事實입니다. 總督官房, 內務局, 財務局, 殖産局, 法務局, 學務局, 警務局, 外事部, 企劃部

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그들의 韓國統治의 目的을 알 수 있습니다. 所謂 文化에 관한 部分은 學務局과 內務局에서 管掌하였는데, 學務局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皇民化를 위한 彈壓教育을 強要하였고, 內務局은 監視와 檢閱을 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 國家가 갖고 있는 內容을 政治, 經濟, 文化, 社會로 나누다면 日帝 36 年間の 植民地政策으로 우리 나라의 經濟는 日本經濟를 위하여 있었고, 文化는 抹殺政策에 의하여 새로운 日本文化建設이란 前提 속에서 政治가 이루어지다가, 8·15를 마쳐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諸要素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8·15後 우리는 壓制로부터 解放된 感激의 나머지 그것이 곧 獨立인 줄만 알고, 차분한 現實的 理知를 가늠하지 못하였으며, 美軍政期間 동안은 政治(廣範한 意味의)라기 보다는 더 惡化하지 않은 範圍에서의 治安과 救護에 멈추어 解放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에 대한 根本的인 接近을 試圖하지 못한채, 1948年 韓國은 獨立政府를 樹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自由黨政府 10 年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解決할 問題의 頭序를 認識하게 되자 政治의 極度の 腐敗로 4·19가 나고, 5·16 軍事革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의 各政權의 國家問題 解決에의 接近策의 特徵을 보면 民主黨政權까지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領域中에서 政治를 第一位로 삼고 經濟를 거기에 從屬시켰으며, 그 成果로 보아서 이는 우리의 問題들을 解決하는 길이 못 된다는 것이 實證의으로 證明되었고, 5·16 革命後 經濟第一主義政策을 써서 그 結果 每年 8%의 經濟成長率을 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將來問題까지도 생각할 段階에 到達한 것입니다. 革命後의 政府組織의 特徵은 公報部의 獨立이었습니다. 勿論 이는 革命이 政權交替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人間改造를 통한 精神革命에 까지 昇華시킨다는 民族中興의 歷史上一大 에포크로서 定着시키려는 革命政府의 意圖와 보다 直接的으로는 政治的 變則인 5·16 革命의 不可避性과 그 正當性을 納得시키는 데 意味가 있었던 것입니다. 公報部의 新設로 말미암아 名目上으로는 文化行政이 文教部 管掌事務이나

實質的으로는 公報部와 兩分되기에 이르러, 이에서 오는 政策的 混線에 대하여 文化界에서는 間斷 없는 批判과 呼訴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以上이 우리 나라 文化行政體制의 歷史의 背景이며, 이를 要約하면 民主黨政權까지는 文化機構는 있었어도 文化行政은 속이 비어 있었고, 革命政府下에서는 文化行政의 分割에서 政策的 統一性 乃至는 合理性의 缺如가 特徵이라면 特徵이랄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歷史的 背景 속에서도 解放後 自由로운 與件 속에서 우리 나라의 文化는 스스로 成長하여 왔던 것이며, 文化界에서는 이와 같은 國家의 文化政策에 대하여 劃期的인 轉換과 脫皮를 要求하여 왔던 것인데, 政府機構改編의 直接的 契機는 朴大統領의 政府 各部處 年初巡視中에 公報部에서의 文化行政 一元化에 대한 一連의 建議에서 發端하였으며, 數日後 文教部 巡視時에 文 文教長官에게 文化行政에 대한 關心을 表明하시고 이에 대한 方案을 研究토록 指示한 데서 現實的으로 이 問題는 提起되었습니니다. 이에 대하여 그 後의 經過를 보면 今年 1月 9日 字 韓京 日報에 行政改革調查委員會의 試案이 發表되었고(巷間에서는 이것이 公報部의 案이란 說도 있음) 그 主要內容은 (1) 現公報部를 文化公報部로 하고 文化局을 新設, 文化宣傳局은 宣傳觀光局으로 하며 國立國樂院을 文化財管理局에 歸屬시키며 (2) 文教部의 文化藝術에 관한 事務 및 機關을 吸收시킨다. (3) 文教部를 教育部로 하고 文藝體育局을 體育局으로 한다. 이러한 內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3月 21日 字 東亞日報는 “3月 21日 文 文教長官은 大統領 指示에 따라 文化 및 教育行政의 分離問題에 對하여 (1) 文化部 獨立案 (2) 文化廳新設案 (3) 文化行政의 公報部 移管 (4) 文教部 文藝體育局을 文化局과 體育局으로 分離하는 4個의 案을 마련하였으나 어느 것을 選擇하는가는 決定되지 않았 다.”는 要旨의 報道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文化所有國家인 까닭에 文化는 重要한 國家政治의 對象인 것입니다. 文化야 말로 오늘날 한 民族이 갖는 가장 貴重하고 高貴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價値요 쫓이며 한 民族의 슬기의 結晶인 것입니다. 先進된 文化所有國家일수록 文化에 대한 關心과 愛着은 큰 것이며 그들이 享有하여온 文化를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냐는 그 나라 政府의 重要한 政策的 對象이 되어 온 것입니다. 後進國에서 政治, 經濟가 차지하는 比重처럼 말입니다. 文化行政은 文化라는 主體性下에서 立案되고 統一性 있게 그리고 強力하게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文化의 領域은 多樣하지만 文化行政은 散在할 수 없습니다. 文化行政은 多樣的 것의 統一化에 生命이 있습니다. 生命이 있는 것은 成長합니다. 統一性이 없는 行

政은 힘이 없고 成長할 수 없습니다. 行政의 分割이란 行政의 切斷입니다. 切斷된 곳에 피가 通할 수 없습니다. 피를 通하게 하지 않고서는 따스하게 할 수 없습니다. 文化行政이란 文化를 따스하게 하는 作用입니다. 이 作用은 文化行政機構의 屬性입니다. 文化行政의 本體는 그 機構가 되며 機構가 없는 곳에 어찌 그 屬性 즉 作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行政機構가 갖는 意義는 큰 것입니다. 한 나라의 政府組織은 바로 그 나라 政治의 展開圖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政府機構改編과 무슨 關聯이 있는가, 圖書館은 왜 今般의 政府機構改編에 神經을 쓰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率直히 말씀 드려서 우리는 文教部에 文化廳이 設置되어 이에 吸收된 公報部로 吸收된 이에 대하여는 아무 相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憂慮하는 바는 圖書館에 대한 行政이 文化行政이나 教育行政이냐에 대한 當局者와 一般市民의 理解에 대하여 우리의 立場을 分明히 밝힐 必要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할 必要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文化行政機構와 直接 關係되기 때문입니다. 一言而蔽之하여 教育和 文化라는 概念과 그리고 政府機構改編에 있어 教育和 文化行政을 分離시킨다는 大前提라면 圖書館은 純粹한 意味의 文化요 말씀드릴 바와 같이 教育行政과 文化行政을 分離한다면 當然히 文化行政에 歸屬되어야 한다는 論理입니다. 社會教育의 一般的인 定義는 「學校外의 靑少年과 成人을 對象으로 하는 教育」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立場에서 國家的인 理想으로 볼 때에 學校教育은 社會教育和 均衡性 있게 調和達成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異議가 있을 수 없고 當然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現象은 우리 나라에서 더욱 痛感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는 教育이 大端히 發展한 나라라는 것은 內外人을 莫論한 一致된 見解인 것입니다. 國家成員의 教育水準이 높으면 社會도 그만큼 高度化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背德과 安逸 悖倫을 비롯하여 非教育的인 일로 짝 차고 아름다운 公德은 찾을 길이 없음은 바로 教育和 社會教育의 運營에 있어 根本的인 잘못이 있음을 反證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學校를 비롯하여 教會 등 올바른 일을 가르치고 直接 指導하는 機關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도 明朗한 社會, 健實한 社會에의 길이 遼遠한 것은 教育이나 宗教 등의 機能으로서는 社會治癒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教育政策이나 宗教政策으로 可能한 것이 아니라 文化政策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文化政策이 教育政策의 一環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文化自體의 原理로서 立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教

育이란 社會學的인 면에서 본다면 廢鎖的이요 靜態的, 豫備的인데 대하여 社會나 文化는 開放的이요 動態的, 現役的인데 原理로서의 基本差異가 있습니다. 圖書館의 問題는 開放的인 文化社會學的인 立場에서 생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世上에는 教育的 機能을 갖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放送, 新聞, TV, 劇場, 百貨店, 工場 할 것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圖書館(公共)만 教育의 테두리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圖書館은 文教部, 新聞放送은 公報部나 말입니다. 勿論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은 當該學校의 教育을 위하여 存在하는 그 學校의 施設인 까닭에 教育政策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對象으로 삼는 것은 어디까지나 公共圖書館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얼른 생각할 때 圖書館行政을 一元化하기 위해서라고 할지 모릅니다. 教育機關과 文化機關을 分離하려고 하는데 있어 圖書館問題에 있어서 이와 같은 必要性和 原則에 逆行하는 것입니다. 勿論 國家的인 理想으로 볼 때에 學校教育은 社會教育과는 密接한 것이며 이와 같은 密接한 關聯性은 教育은 教育의 테두리 안에서 社會教育은 社會教育의 文化的機能의 原理內에서 調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教育和 文化와의 關係와 같습니다. 社會教育은 教育이란 말이 붙여어도 本質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教育이 아니라 文化機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留意할 것은 「教育機能」과 「教育的機能」, 「文化機能」과 「文化的機能」이란 말의 뉴앙스인 것입니다. 教育和 社會教育의 同質性은 教育에 있는 것이 아니라 文化란 데 있는 까닭입니다. 이는 文化를 教育의 外延이요 教育의 內延이란 데서 오는 것일 뿐이며 構造的으로 次元이 다른 것입니다. 教育和 傳達(Communication)과는 本質的으로 區分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教育도 그 本來의 姿勢確立에 크나 큰 過誤에 빠질 것을 疑心치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本人은 教育者들이 내린 社會教育의 定義에 대하여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即 「學校外的 靑少年과 成人을 對象으로 하는 教育」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社會教育의 意義로서는 몰라도 定義로서는 未洽하고 矛盾됨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學校外的 靑少年과 成人을 對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 教育의 主體와 現場이 說明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學校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社會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學校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教育한다는 것입니까? 學校가 社會教育機關입니까? 社會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教育和 社會教育은 그 主體와 現場, 그리고 內容과 方法이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教育의 內容은

市民으로서 社會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役軍을 기르면서 全人生의 教育(Life long education)으로서의 人格陶冶를 目標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教育은 人間教育이요 社會教育은 社會開化에 目標를 두는 것입니다. 社會教育은 本質的으로 教育活動이 아니라 文化活動이란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社會性에 있습니다.

社會敎化를 通하여 社會를 보다 高次的인 價値에로 變革시키는 것입니다. 文化의 特質은 多樣性, 總括性, 廣範性, 一般性, 現在性에 基礎한 價値體系라는 데 있습니다. 特히 公共圖書館은 特質이 그 活動의 社會性에 있으며 社會에서의 社會敎化機關으로서, 奉仕機關으로서, 情報 센터로서, 調查研究機關으로서, 綜合的인 文化機關으로서의 活動을 하여 社會文化的 暢達에 寄與하는 機關인 것입니다. 本質的으로 社會教育은 文化活動이란 것입니다. 그 特殊性에 鑑하여 社會教育은 教育政策에 의해서가 아니라 文化政策에 立脚하여야 비로소 제대로의 구실을 遂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現公共圖書館 行政體制는 어떤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其實, 政府機構改編에 대한 여러 가지 案이 나오고 있고 文化行政의 分割에서 오는 여러 가지 矛盾點에 대하여 提起가 되고 있지만 그 對象에 대하여서는 크게 論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昨今까지의 新聞報道로써 알 수 있습니다. 其實 圖書館界는 오래 前부터 같은 公共圖書館이면서도 所屬廳을 各其 달리하고 있어 所屬廳의 一元化問題는 圖書館大會에서 여러 차례 擧論되고 當局에 建議되어 왔던 것입니다. 全國公共圖書館의 總數가 59 個館인데, 그 中文敎部所管이 9 個館, 內務部 所管이 39 個館, 그리고 私立이 11 個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文化業務가 文敎部所管이나 圖書館의 問題는 所屬廳과 監督廳을 分離한데서 온 圖書館法 規定의 矛盾에서 온 結果인 것입니다. 즉 公共圖書館 設立에 대하여 圖書館法은 第7條에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게 公共圖書館의 設立運營을 勸獎하고 第18條의 公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에서 「各級 地方自治團體는 法과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고, 第20條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에 關하여 規定함으로써, 公共圖書館의 所屬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그리고 私立機關의 3種으로 規定하여 宿命的으로 이와 같은 問題를 胚胎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所屬(設立者)과 監督廳의 分離에서 오는 不合理性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私立의 問題는 오늘의 主題에서 除外하여야 하겠지만, 國家機關의 公共圖書館의 所屬을 分離한 것은 이미 設立된 公共圖書館의 運營에 있어서도 責任과 權限이 兩分되어 行政的 隘路가 많아 그 發展을 沮害할 뿐만 아니라, 大幅的인 公共圖書館의 增

設을 막고 있어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發展에 現實的인 障礙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原則的으로 設立者는 그 圖書館의 管理運營에 있어 人事權 財政權 運營權을 갖는다는 것이고 監督者는 圖書館法上으로는 所屬廳의 行政權者와 監督權者가 同一한 文教部 傘下 公共圖書館을 除外하고는 아무리 法上「指導, 監督」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이것은 實質的으로 「助言」과 「勸告」以外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規定의 意圖와 精神으로 보아서는 公共圖書館의 地域社會와의 密接한 유대 및 地方自治精神을 強調하고 있음을 窮知할 수 있고, 그리고 民主行政의 指向點이 「指導와 勸告」에 있으며, 더우기 文化行政은 이와 같은 것이 要請된다는 것도 考慮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나, 韓國的인 行政類型에 대한 보다 깊은 理解와 後進國에 있어서의 行政力強化의 必然性 그리고 결붙어 韓國圖書館 發展과 振興을 위하여 國家行政 役割의 重大性에 보다 깊은 思慮가 있었으면 하는 感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든 現行法上으로 內務部에 屬해 있는 公共圖書館들은 行政上으로 兩쪽의 行政指示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事務上의 煩雜 뿐만 아니라 圖書館은 兩쪽으로 부터 關心의 領域을 벗어나게 되어 強力하고 一貫된 圖書館政策의 展開가 困難할 뿐만 아니라 人事問題에 있어서는 가뜰이나 圖書館이 公務員의 流配處로 認識되어 있는 데다 兩쪽으로 부터 庶子取扱을 받아 勤務하는 司書들의 士氣에도 莫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 事實인 것입니다. 더우기 財政面에 있어서는 더 큰 隘路가 있는 것입니다. 特히 文教部 所屬下의 公共圖書館의 豫算은 內務部(地方自治團體)에서 나오고 執行은 文教部에서 하니 豫算의 適切한 策定이나 그 執行의 迅速性乃至는 効率的 使用은 可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圖書館의 增設에도 커다란 影響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今 文教部에서 推進되는 公共圖書館設置 5年計劃이 實施될 때 文教部에서 配當되는 資金은 國家豫算인 國庫에서 나가는 것이며 이 資金으로 建設되는 公共圖書館의 所屬廳問題로 새로운 問題가 提起될 것을 우리는 豫想할 수 있습니다. 國家가 建設하는 公共圖書館은 當然히 文教部 所屬이 되겠으나 問題는 地方自治團體에 주는 公共圖書館 建設을 위한 補助金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內務部의 態度가 注目되는 것입니다. 左右間 所屬廳의 一元化는 國家利益과 地域利益을 効率的으로 살릴 수 있도록 圖書館法의 改定과 圖書館에 대한 國家의 遠大하면서도 確固한 비전과 政策이 確立되지 않고서는 韓國公共圖書館의 發展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에 政府機構改編과 더불어 생각하여야 할 것은

社會教育에 대한 基本的인 비전의 確立과 그 施行에 있어 政府 各部處의 混線의 排除입니다. 이것은 政府施策이 地域社會에서 展開될 때 有機的인 相互協助으로써 그 效果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本人은 昨年 南山에서 열린 圖書館大會에서 文化政策을 말씀드림에 있어 1970年代까지는 經濟第一主義의 時代요 第2次5年計劃이 끝나면 반드시 文化主義의 時代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圖書館은 모든 괴로움과 惡條件을 참고 克服해서 이에 대한 準備를 갖추어 對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그것은 좀 빨리 왔으며 그것은 朴大統領의 第二經濟運動에 대한 先唱인 것입니다. 이것은 歷史的으로는 1970年代에 대한 序曲이요 實質的으로는 經濟建設에 있어서도 文化的 精神的인 뒷받침이 없이는 그 實効를 거둘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經濟第一主義하 같은 國家政策의 現時點에서 優先을 둔 것 뿐이지 國家目標은 「近代化」에 있는 까닭입니다. 大統領閣下의 第二經濟運動과 今般의 政府機構改編論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相互 函數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1970年代에 대하여는 文化政治에 대한 기틀을 確立하여 새 時代에의 自然스러운 移行을 뜻하는 것이요 經濟政治를 차질 없이 遂行하여 近代化를 보다 迅速히 達成하기 위한 制度의 整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都下 言論機關의 反響은 第二經濟는 理念이 없느니 哲學이 없느니 言語의 遊戯니 떠들어 빈정대고 社會教育機關은 이것 以前에 이와 같은 活動을 展開하여 이 나라의 近代化를 위하여 全力量을 기울였어야 할 것을 大統領閣下의 의견에 대하여 아무런 方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은 至極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社會教育의 一翼을 擔當한 圖書館人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活動에 대한 冷情한 反省과 批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第二經濟란 學問이나 哲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態度(Attitude)요 行動(Behavior)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精神問題가 文化價値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價値로서 이바지되어야 한다는 運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經濟建設이 至上命題인 現時點에 있어 文化的 位置를 가장 잘 表現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文化를 文化로서의 價値를 無視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近代化함에 있어서 解決하여야 할 많은 問題를 우리는 歷史的 遺業으로 안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祖國의 近代化를 이룩함에 있어 政治, 經濟, 文化, 社會를 同時에, 그리고 安定性 있게 解決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現時點이 너무나 刻迫하고 興

하느냐 亡하느냐의 너무나 非常時에 處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歷代政權이 政治적으로 또는 經濟와 並行시켜 解決하려고 한 것은 失敗하였고 너무나 安易한 方法인 잘못된 處方임을 깨달았으며, 經濟를 解決하고 다음 文化, 政治의 圖式의 路線을 걷고 있는 現政府의 施策은 가장 賢明한 國家發展策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近代化시킴에는 文化는 그 根幹의 하나입니다. 1970年代까지의 文化政策의 基本的性格은 文化를 發展시키고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經濟建設과 密接히 連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社會教育關係만 보더라도 政府의 施策은 各部處가 제 나름으로 進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國力을 分散시켜 投資對效果의 原理로 볼 때 至極히 非經濟的이요 非合理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具體적으로 말씀드리서 우리 나라의 社會教育體制의 亂脈에 대하여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의 活動狀況도 相互協同 乃至는 有機性이 없다는 것입니다. 文教部의 圖書館 博物館, 大學生의 新生活運動, 公報部의 公報館 또는 文化館, 保社部의 產兒制限運動, 農林部의 4H클럽 運動, 農業協同組合運動, 農事敎導事業, 地域社會開發運動, 再建國民運動 其他 갖가지의 啓蒙運動 등 一線에 있어서의 混線인 것입니다.

특히 公共圖書館과 公報館 文化院은 實質적으로 機能面에서 아무런 差異가 없는 것입니다. 法律上으로는 法條文의 文章을 달리하고 있지만 內容은 같다는 것입니다. 公報館이 「施設」이나 「機能」이나 따지고 볼 때 相當한 異論이 있겠으나 施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圖書館이 옛날과 다른 點은 書庫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地域社會에서의 綜合的인 文化機關이란 것입니다. 圖書館의 ダイナ믹한 面은 이것이 여러 가지의 對外活動(Extension Services)으로서 나타나며 이것은 公共圖書館이 갖고 있는 社會性을 遂行하는 多樣한 社會參與의 方式인 것입니다. 圖書館運動이란 社會의 文化向上運動이지 讀書運動이 아닌 것입니다. 圖書館과 公報館이 兩立하는 限 그리고 이것이 同一地區에 있을 때 서울과 같은 大都市는 問題가 다르지만 中小都市와 地方에 있어서는 그 運營의 優劣에 따라 淘汰될 것은 分明합니다. 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의 文化運動의 亂脈上을 막고 國家財政이 有效하게 使用되어 效果를 올리려면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文化運動(社會教育機關)의 綜合的이며 企劃性 있는 體制가 必要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地域社會의 文化運動은 圖書館이 그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國家制度로서의 社會教育에 대한 合理的인 體系의 確立이 무엇보다도 緊要한 것이며 우리는 地域社會의 發展과 祖國의 近代化에 있어 우리 公共圖書館이 크나 큰 貢獻과 役割을 다 하기 위하여 이 大會를 通하여 決意를 새 로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以上 變변치 못한 內容으로 政府機構改編이 檢討되고 있는 이 때에 圖書館에서의 當面한 몇 가지의 問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當局은 當局대로 圖書館問題에 대한 見解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諸問題도 「圖書館의 소리」로서 參考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一線에서 苦闘하시는 會員 諸位의 健勝을 비웁니다.

會員 諸位의 꾸준한 協助와 鞭撻로 創立한 以來 落後된 圖書館發展에 盡力하고 있음을 同慶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本會의 財源은 國庫補助와 會費이온 바 國庫補助는 當局에서 指定 承認하여준 事業費補助이며 自體事業費와 經常費는 會費로써 充當됩니다. 지난 第14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總 18種의 事業을 成功裡에 完遂하고,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려는 共同努力에 會員諸位의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事情이 있을 줄 思料되오나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